

# 진각종

## 법공양 페이지

-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 제작하는 법공양면을 신선했습니다. 신설 법공양면은
- 본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6
- 면)과는 별도로 통찰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 제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 “회당사상, 21세기 밝히는 등불”

밀교 중흥조 회당손규상 대종사



지으시기도 하셨다. 당시 인생과 우주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고서 각고 노력하시며 불문의 이치 속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하고 불문에 들어 뒀으셨다. 불문의 법문에서 크게 감명을 받고 공부하시다가, 드디어 경북 성서면에 수행도량을 마련하고 49일, 100일 윤행정진하신 후 육자진언의 묘미를 증득하여 '이 여섯자와 닮아나는 부처와 재보살과 중생들의 광만사한 모든 법장 육자진언 총지본에 의지하여 있느니라'라는 말씀과 함께 육자진언의 대지를 얻으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비밀한 가운데 법신의 심인을 전수상을 하시고, '법계의 성(性)은 하나이시라. 온 우주에 충만하여 있는 곳이 없으므로 가까이 곧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대일상

회당 손규상(會堂孫圭詳) 대종사님의 진한신 종교를 진각종(眞覺宗) 또는 진각밀교(眞覺密敎)라 한다. 이는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 음이니반(音이니반)을 중축(中軸)으로한 삼밀관행법(三密觀行法)으로 법신부처님의 미묘한 진리를 체현하는 내용을 가진 그대로 계시(啓示)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밀교라 하고 또 현밀이교승(顯密二敎)에서 실재하는 것과 같이 일체 미망(迷妄)을 다려낸 진실한 각(覺)의 종교이기 때문에 진각종(眞覺宗)이라 하는 것이다.

**개종이념**  
밀교중흥·생활불교·심인 구현  
진각종의 개종 이념은 밀교중흥, 생활불교, 현재정화, 심인의 구현이라는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이 네가지의 이념은 심인(心印)의 구현이라는 이념 속에 포섭되는데, 이는 진각종이 가지는 내외 진리가 바로 심인진리이기 때문이다.

**진각종지**  
육자진언 받들어 진리를 체득  
진각종은 사방삼세에 하나로 계시는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부처와 중생의 광만(正覺) 삼인(三印)인 육자진언 음이니반(音이니반)을 신령의 본질로 받들어 법신 불 진리를 체득하고 현재정화함을 종지로 한다.

**종단연혁**  
90년 美L.A 불광심인당 설립  
1947년 6월: 진각종 입교 개종(창교)  
1949년 12월: 삼인종교 심인불교로 개명  
1953년 8월: 대한불교 진각종으로 개명  
1954년 1월: 육자재단 설립  
1963년 10월: 회당 대종사 열반  
1965년 12월: 대구 심인종교 설립  
1966년 1월: 월곡동 총인연 완공  
1974년 12월: 함주 심인당 완공  
1974년 4월: 회당 광학의 설립  
1976년 12월: 서울 진산어중교 설립  
1982년 4월: 중앙교육원 설립  
1990년 11월: L.A 불광심인당 설립  
1992년 4월: 회당학회 창립



총인 각해 대종사

現世淨化 (현세정화)  
卽身成佛 (즉신성불)  
當相卽道 (당상즉도)  
卽事而眞 (즉사이진)  
時時佛供 (시시불공)  
處處佛供 (처처불공)

### 진각종 수행법

진각종의 수행법은 삼밀관행법(三密觀行法)이다. 진각종의 삼밀관행법은 종조님께서 순수 체험으로 증득하시고 전수하신 것이다. 첫째, 심밀(審密)은 법신비로자나불의 결인인 금강지권 또는 금강권을 결하고, 둘째, 구밀(口密)은 육자대명왕진언 음이니반(音이니반)을 염송하고, 셋째, 의밀(意密)은 육자진언(六字眞言)으로 자신의 몸이 법신(佛身)과 일체광명함을 관하는 것이다. 이 삼밀관행법으로 행자와 부처의 심밀이 상응하게 되면, 법신의 심밀과 중생의 심밀이 서로 공명하게 되어 즉신성불(卽身成佛) 즉 이 몸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진각종은 바로 이 신비와 삼밀관행법을 기본수행으로 하고 있다.



함주 심인당 전경

### 삼밀관행법 닦아 즉신성불 추구 육자진언 염송통해 대안락 얻어

진언이란 부처님의 신성한 경지를 나타낸 말이라는 뜻에서 진언(眞言)이라 한다. 진언을 이것을 염송함으로써 신성한 마음이 통일되어 이 속에 부처님의 무한한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지 또는 닦아 나라 한다. 육자진언 음이니반(音이니반)은 법신의 경지에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대자비로 살한 경이므로 부처님과 보살, 중생들의 본성이다. 따라서 이 진언을 염송하면 법신의 살법을 듣게 되어서 번뇌를 소멸하고 본성이 일어나 부처님의 경지에 들게 되어 대안락을 얻게 된다. 염송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진각종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염송법을 주로 하고 있다. • 향가염송: 진언을 크게 소리내어 하는 염송, 소리를 맞추어 같이 하는 염송, 소리를 맞추어 같이 하는 염송하는 방법으로 번뇌를 막고 선정에 드는 방법이다. • 연화염송: 진언을 자기 위에 들리도록 여러 분명하게 소리내어 번뇌와 수마를 없애 하여 선정에 드는 법이다. • 금강염송: 입술 다물고 혀만 붙여 진언을 염송하는 방법이다. • 삼마지염송: 혀를 천장에 붙이고 뜻으로 진언자를 관하는 염송법이다.

**조직표**

총인 각해  
총리원장 지권  
총무부장 일경  
재무부장 성초 재무국장 호암  
총교부장 석봉 문화국장 최정  
건설부장 우승 공무국장 대경  
중앙교육원장 도훈  
교법부장 추명 교법국장 덕일  
교육국장 관중

중의회의장 경혜  
부의장 법관 대인회 사무처장 덕정

사감원장 소암  
사감부장 진담

서울시 성북구 하암로 22번지  
☎ 913-0751-3 913-0803-4  
FAX 915-6032

### “역사 통찰 불법으로 구국도생”

‘心印’, 생활속에 수행하는 새 불교운동

이 땅 밀교의 중흥조, 회당 손규상 대종사는 근세 한국 불교사가 낳은 위대한 종교가요, 사상가이며 철학가이다. 회당대종사는 불소 불법의 재건을 위해 실천 공행하고 굿어온 밀교의 중흥을 열어 제도의 방편을 궁구한 밀교의 중흥조라 할수 있다. 회당 대종사께서는 일찍이 시대와 역사적 상황을 통찰하시고 인류의 정신적 민권과 불교의 진리가 쇠멸하여 감을 개탄하시고 구국도생의 대비원을 발하시었다. 그리하여 '과학밖에 없다' 하고 심성의 진리를 무시하면 말·진·치가 치성하여 살·도·음의 법칙자가 날로 성해지게 되고 국가사회가 위태하게 된다'고 판단하시고 '불법은 중요 새간법은 그림자라'라는 신념을 새우시고 이를 생활이념으로 삼으셨다. 불법이란 '해탈이 곧 법문'이요, 사상이 곧 경전이다'는 법계의 이치를 깨달은 것이며, '의사는 육체법을 고치고, 법신불은 정신법을 고친다'는 이 법이 곧 인간이 사는 실천원리라고 천명하셨다. 그래서 우주의 보편적 진리며 인간의 구체적 생활 실천원리인 불법에 의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를 체득하고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 인류가 삼길임을 밝혀셨다. 그리고 밀교는 정상발의 흥세가 없으므로, '말법시대 불교는 다르니로서 흥왕한다'는 기치를 내 불어하시고 이어 우주 진리의 근원이고 법신불의 본성인 '음·마·니·반·메·홍(육자진언)의 묘리를 수행하여 인간의 본성은 법신불의 본성과 일체 광명함을 지각하는 수행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대종사께서는 진공이 자비하시며 웅대한 도량과 놀라운 기상으로 사물에 대한 연구에이 풍부하시고 불피천의 용단력을 발휘하신 대가이셨다. 어릴때부터 한학에 정진하시어 10세시에는 '십일당천만(心一億千萬) 집백화단장(眞三萬丹)'의 글을

### 결리관 봉축현수막 제작 보급 안내

불기 2539년 (음)사월초파일 (양) 5월 7일

**봉 축 부처님 오신 날**

■ 봉축현수막 크기 및 보급가격 : 90cm×6cm(₩ 35,000), 90cm×8cm(₩ 45,000)  
귀의삼보하옵고 불법홍포와 자비원력의 시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스님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적 축제인 부처님 오신 날에 각사암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축제의 장엄물로서 전국민에게 불심을 전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두터운 불심으로 불교전통공예 제작과 보급에만 전념하면서 부처님의 성품을 통하여 다년간 우리의 미래-부처님 품안 포교를 펴고 있는 본 삼전불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탄생불과 불자의 근본인 삼귀의를 완벽하게 나타낸 현수막을 제작·보급하오니 스님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삼田佛事 三田佛事 三田佛事  
圓空金相吉合掌  
서울특별시 鍾路區 壽松洞 46-19 (원당 B / D 202호)  
電話: (02) 732-6095-6  
FAX: (02) 732-6096

### 웃어야 하는 이유 ㉔

#### 돈으로 살 수 없는 약

웃음이라는 약은 돈주고 살 수 없지만, 그 효력은 어떤 처방보다도 높습니다. 때로는 웃지 않는 것 자체가 병이어서, 환자를 웃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 병자치고 잘 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꾸로, 잘 웃는 사람치고 병에 걸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에 관한 어떤 과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면, 동시에 뇌의 신경계에 의해 촉발된 전지파동이 뇌속과 다른 인체부부분들의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인체의 내분비선 계통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친인인양제와 진통제를 분비하도록 뇌에 명령합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물질들 중에는 소화를 돕는 것이 있는가 하면, 통증을 수축 이완시켜 피의 흐름을 촉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비물은 고통감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웃음만이 최상의 치료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칠지 모르지만, 웃음이 좋은 약이라고 하는 데에 반대할 의사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웃음은 돈주고도 살 수 없는 영약임에 틀림없습니다.

#### 웃음시다!

한 이론난 정신의학 교수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감정선이 잘려지는 우등생 천용석이고, 뒷자리는 낙재생 천용석이다" 강의 시간에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관찰해 보니, 공부 잘하는 학생은 누가 할 인해도 잘자리에 있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꼭 뒷자리에 앉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학생이 공부를 잘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앞자리에 있기 때문이요, 뒷자리에 앉은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것 역시 그가 뒷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관자치고 웃는 얼굴이 없다고 합니다. 병실에 거보면 대부분 시무룩하거나 잔뜩 찌푸린 얼굴, 몹시 화가 난 표정들입니다. 실제 환자 중에 웃는 얼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바깥까지도 건강한 사람 중에 우울하거나 짜증스런 얼굴을 짓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얼굴색이 좋지 않기도 하겠지만, 개중에는 늘 찌푸려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난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병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시다!

인산가족이 아닌 돈 주고 사기 싫은  
**인산죽염된장**  
150년을 잇는 전통이 건강의 맥 仁山家

웃어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인산죽염된장**  
전혀로 주시며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736-3171